

편집자 주 : 이 글은 우리협회에서 최근 새로 만든 역사문화특별위원회의 최무장 위원장께서 특위 출범을 축하하며 하천 문화에 대한 소감을 올리신 글입니다. 역사문화특위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최 무 장 | 연천선사박물관장, 건국대 명예교수
우리협회 역사문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반도의 하천문화

1. 농경문화의 시작과 하천

인류는 기본적으로 기원전 9,000~7,000년 사이에 강가의 계곡에서 정착이 시작된다. 정착(Settlement)이 시작되면서, 남녀 결합의 가족(Families)이 탄생되고, 곡물재배, 물고기 잡이, 가축사육(개, 돼지, 소, 양 또는 염소, 닭 등)이 시작된다. 인류 최초 자연곡물인 기장, 피, 조, 수수 등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및 나일강 유역에서 재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재배된 밀, 보리도 이 지역에서 재배되었다. 옥수수는 기원전 6,00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서, 쌀은 기원전 5,000년경 동북아시아에서 재배되었다.

한반도는 양양 오산리 유적, 한강변의 암사동 유적, 임진강 원당리 유적 등에서 정착, 곡물재배, 가축사육 등과 동시에 토기(土器, pottery) 제작이 시작된다. 한반도 표준적인 빗살 무늬 토기도 제작되면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최초의 경작도 구인 곡괭이 일종(mattock)이 제작되고, 이어서 사암제 솥들에 날을 갈아서 만든 마제돌도끼(polish axe)가 성행한다.

한반도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000~300년, 이 사이 예맥족의 대표적 무덤은 고인돌(支石墓, Dolmen)이다. 이러한 거석문화는 서구 유럽지역에서도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널리 분포 되었다. 고인돌 축조는 예맥족(한민족의 직접조상)의

독특한 작품이며, 이 무덤들은 강가의 높은 제방에 비교적 많이 축조되어 있다. 고인돌과 같이 축조된 선돌(立石, Menhil)도 이 시기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다. 선돌, 고인돌 축조시 한반도 지역에 쌀(Rice) 재배와 소금(Salt) 보급이 널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초기국가의 발상지인 하천

“강물은 사람들의 젖줄”이라는 우리의 전통사상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은 “강물은 인간의 영혼(Rivers, Soul of human Soul)”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큰 강(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한탄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과 섬진강) 등의 강 제방 및 독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30만년에서 1만년 전까지 선사시대인들이 생활하였으며, 중국측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 정착인들을 예맥(濊貊)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예맥족의 일부인 부여족(夫餘族)은 기원전 5세기경에 최초의 도시국가(city-state)를 세우고, 이 부여족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분류되었다.

역사시대 초기부터 고구려는 압록강과 대동강, 백제는 한강과 금강, 신라는 낙동강 등을 중심으로 초기 국가를 건립

하였다. 우리의 핏줄을 이어받은 발해(渤海)도 흑룡강성, 송화강과 압록강 일대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200여년간 존속하였으며, 고려는 임진강가에서, 조선은 한강가에서 나라를 세웠다.

3. 수상교통 목적의 하천

고대국가의 수도는 하천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하천을 통한 수상교통과 물자의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고구려(高句麗)는 졸본성에서는 혼강, 국내성은 압록강, 평양성에서는 대동강을 통하여 서해바다로 나갔다. 백제(百濟)는 한성은 한강, 웅진성과 사비성은 금강을 통하여 서해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 동남아와 교역을 하였다. 가야(伽倻)와 신라(新羅)는 낙동강을 통하여 남해바다로 나갔다. 이것은 사람과 물자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文化)가 오고 갔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4. 군사목적으로서의 하천

우리 민족이 건국한 삼국(三國), 고려(高麗), 조선(朝鮮)을 보면 대부분 500여년이 넘고 신라(新羅)는 1000여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을 유지하였다. 이들 국가가 장구한 세월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가 수도가 하천을 끼고 있고 그것을 해자(亥字)로 삼아 군사적으로 적을 방어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경우 평지성인 국내성이 함락될 경우를 대비하여 쌓은 환도산성이 동,서,북쪽이 모두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통구하라는 하천이 막고 있는 천연의 요새로 이 하천이 바로 적을 건너지 못하게 막는 해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백제가 서 울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가장 강성했던 500여년이 넘는 한성시기에 그들은 1차 방어선이 예성강(禮成江), 2차 방어선이 임진강(臨津江), 3차 방어선을 한강(漢江)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하천은 경계를 나눌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방어 목적으로 매우 잘 활용되었던 것이다.

5. 신앙적 역할을 한 하천

최근에 백제문화연구회 한종섭 회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순제 교수와 필자가 조사한 화순군(和順郡) 능주면(綾州面) 일대의 청동기시대 마한(馬韓) 여래비리국의 유적을 보면 지석천(砥石川)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왕궁터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은 천단, 제단, 칠성바위, 사반의 무덤, 당산나무, 우물 등으로 배치된 마한시대의 신앙지인 소도(蘇塗)유적과 세계최대의 고인돌군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나일강(Nile River)을 중심으로 왕궁과 신전이 나누어져있는 것과 같이 북쪽은 산자인 왕의 영역이고 남쪽은 죽은 후의 세계를 상징하는 하느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그 옆을 흐르는 하천은 하늘의 옥황상제가 계시는 자미원의 옆을 흐르는 은하수인 천한수(天漢水)를 상징하며 고대 신전의 중심부에 신관들이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성스러운 천한수를 받아 목욕을 하던 목욕탕이 있었다. 이와 같이 소도 유적에도 천한수가 지상에 떨어진 물인 정한수(井漢水)를 떠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6. 감성적 역할의 하천

우리나라의 하천변을 거닐다 보면 정자(亭子)들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마을의 위치들을 보면 북쪽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그리고 남쪽에는 하천변에 넓은 벌판이 전개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민속촌들로 바뀐 멋들어진 양반가의 기와집 뒷마루에 오르게 되면 영락없이 넓은 들과 더불어 굽이치는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와 가슴이 탁 트이게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심성을 가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잊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양재천과 청계천 복원을 통해 삭막한 도심 속에서 아이들에게 웃을 수 있는 동심을 돌려준 바 있다. 우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하천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